

2. 마을의 역사

1400년경에 담양인(潭陽人) 전말항(田末項)이란 선비가 개척하였고, 그 후 그의 아들 전필위(田弼違)가 피란(避亂) 갔다 오는 길에 앞산(山)을 바라보니 산(山) 형태가 개화형(開花形)과 같다 하여 마을 이름을 화리(花里)라 하였다.

3. 성씨별가구 분포

총 44세대가 거주하며 담양 전씨(潭陽田氏), 울진 장씨(蔚珍張氏),新安 주씨(新安朱氏) 등이 주로 세거하는 집성촌이다.

4. 마을의 특징

1) 성황당(城隍堂)

마을 입구 산(山) 중턱에 있는 모과나무를 신목으로 모시는 성황(老松城隍)에 매년 음력 정월 15일에 제사를 지낸다.

3) 솔골(松谷)

옛날부터 울창한 소나무가 많이 있는 곳이라 하여 솔골(松谷)이라 한다.

3) 유허비각(遺墟碑閣)

1858년(철종 9)에 건립한 만은(晚隱) 전선선생(田銑先生)의 비각(碑閣)으로 묵암(默庵) 전필위(田弼違), 만은(晚隱) 전선선생(田銑先生) 조손(祖孫)의 유허비각(遺墟碑閣)이 함께 화리(花里) 입구 솔거지등(嶺)에 세워져 있다.

제26절 주인1리(周仁一里)[속명: 석수(石水)]

1. 마을의 자연환경

동쪽은 매봉산(鷹峰山) 지맥(支脈)인 비릿재산(山)이 좌청룡형국(左靑龍形局)으로 감싸며 산 끝에 부구천(富邱川) 중류(中流)와 맞닿아 있다. 서쪽은 멀리 매봉산 주봉(主峰)을 바라

보며 그 지맥(支脈)인 동등재산(山)이 우백호형국(右白虎形局)으로 감싸고 있다. 남쪽은 부구천(富邱川)을 건너 방골산, 칼산, 모산재, 새두들, 건들, 대골, 독골, 매장골 등 크고 작은 산과 들이 있으며, 북쪽도 역시 매봉산(鷹峰山) 지맥(支脈)이 내려오면서 동상목이장대등, 뒷산, 수태(水汰)골, 생골 등 산(山)과 계곡 도랑을 이루고 있다. 마을회관은 2016년에 개축되었으며, 경로당과 공용이다. 최근에 한울원자력발전소 퇴직자들이 조성한 전원주택 단지가 있다.

2. 마을의 역사

1) 도리(道理), 독골(道谷)

옛날에 절(寺刹)이 있었다 하여 도곡(道谷)이라고 불렸으며, 400여 년 전에 울진 장씨(蔚珍張氏)가 이곳을 개척, 정착하면서 터전을 잡았다. 울진 장씨 낭장공파의 매정과 파시조인 찰방공 천말(天末)의 묘소가 있으며, 장씨문중(張氏門中)의 유현(儒賢)과 묵객(墨客)들이 풍월소일(風月消日)하던 영모정(永慕亭)이 현존한다. 영모정 건너편인 이매재 초입에 찰방공 장천말 선생의 유허각이 있다.

2) 석수리(石水里)

연대(年代) 미상(未詳)이나 이 마을의 처음 개척자는 남씨(南氏)라고 전해오고 있으며, 400여 년 전에 주인2리(中里)에 정착한 전주 이씨(全州李氏) 입향조(入鄕祖)의 자손이 정착하여 터전을 잡았다. 석수리(石水里)의 유래는 이 마을에 홍수(洪水)가 나면 사람들이 비릿길[벼랑길]로 통행하게 되어 돌수비리[돌시비리]를 한자어로 석수리(石水里)라고 표기했다. 그 후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주인리(周仁里)로 개칭하였다. 석수마을은 30여 년 전까지 과수원 마을로 이름이 높았다.

3. 가구 분포

총 87세대가 거주하며 전주 이씨(全州李氏), 울진 장씨(蔚珍張氏), 담양 전씨(潭陽田氏), 영월 엄씨(寧越嚴氏) 등이 세거하고 있다.